

<https://doi.org/10.22643/JRMP.2019.5.1.1>

The 2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opharmaceutical Sciences in Beijing China

Jae Min Jeong^{1,2, 3*}

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opharmaceutical Sciences (ISRS)는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 Sciences (SRS)가 2년마다 개최하는 방사성의약품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심포지엄이다. 올해는 5월 26일에서 31일 사이에 중국의 북경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ISRS는 필자가 SRS의 회장이어서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대회였다.

ISRS는 1976년에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시작하여 올해가 23번째로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한국 다음으로 세번째로 중국에서 하였다. 주로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개최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다.

SRS는 ISRS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또 Terachem이라고 하여 금속성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학술대회를 4년에 한번씩 개최한다. ISRS는 아시아/오세아니아-유럽/아프리카-남북미 대륙을 순환하면서 개최하고 Terachem은 이탈리아의 Bressanone에서만 개최한다. 2017년에는 ISRS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까지는 local organizing committee가 모든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을 SRS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북경 대회부터는

모든 경영을 SRS에서 하여 개최하는 곳에서는 잘 못하여 적자가 나도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개최하는 사람은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

이 학회의 가장 큰 상은 President Award인데 FDG를 최초로 개발한 가천의대의 Ido Tatsuo 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Distinguished Service Award는 SRS 초대 회장인 스위스 쥐리히 대학의 August Schubiger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ISRS에서는 5개의 키노트 발표와 88개의 구두 발표 및 405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총 653명이 등록하였는데 이 중 아시아/오세아니아가 156 명, 유럽/아프리카가 264 명 남북미가 143 명이어서 미국에서 예상보다 적게 참석하였다.

SRS에서 출간하는 학술지는 Nuclear Medicine and Biology (NMB)인데 거의 모든 논문이 방사성의약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방사성의약품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지이다. 그러나 Impact Factor가 오르지 않아서 SRS의 고민이기도 하다. NMB Editorial board meeting에 참가하여 보니 편집위원장인 Bert Windhorst가 미국과 유럽

Received: June 28, 2019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

Copyright©2019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에서 투고 숫자가 줄고 중국에서 투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 미국과 유럽보다는 한국이 더 줄어 든 것 같다. 4, 5 년전에는 한국이 상당히 많이 투고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밑바닥 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마도 Impact Factor가 높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학술지로 논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ISRS에서 한 번씩 있는 Excursion은 이번 북경대회에서는 Summer palace로 갔다. 북경 하면 대부분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는 그 두 곳을 다 봤기 때문에, 전번 Scientific committee에서 Summer palace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Excursion 장소를 Summer palace로 정한 모양이다. 역시 회장이 세긴 세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에 못 가봐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필자가 SRS 회장으로서는 회원 총회를 주재하였고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Antony Gee 교수에게 회장을 물려 주었는데, 필자는 회장의 공로로 상패와 나무 망치를 받았다. 나무 망치는 왜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차기 회장은 미국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Jason Lewis 교수가 되었다.

앞으로 제24차 ISRS는 2021년에 프랑스의 낭트에서 그리고 제25차 ISRS는 2023년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되었다. 두 장소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니 우리 방사성의약품학회 회원들은 새로운 정보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도 사귀고 머리도 식힐 겸 가급적 모두 참석하기를 권하는 바이다.